육아지원전자바우처 도입 현황과 전망

최진 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1. 들어가며

그간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도입되어온 전자바우처(전자 서비스 이용권) 제도가 유아교육·보육 분야에도 도입되었다. 육아지원전자바우처는 육아서비스 공급자인 보육시설에 지급되던 보조금을 이용자인 부모에게 카드 형태로 제공하여 투명한 예산 집행과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이와 같은 기대는 2007년부터 전자바우처 형태로 시행되어 온 노인 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 등의 전자바우처 제도가 수요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였고 행정 비용도 절감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힘을 얻고 있다.

물론, 육아지원 전자바우처에 대한 우려 또한 없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 공급자들은 카드를 사용하는 바우처 방식이 수수료나 단말기 관련 비용 등을 발생시켜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몇 몇 연구자들은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육아 서비스 여건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부모들은 보육전자바우처인 i-사랑카드 발급과정에서 카드사의 서비스에 대한 각종 불만들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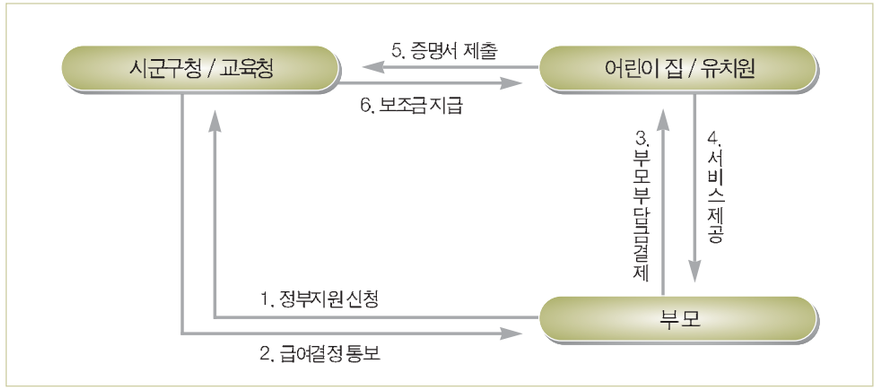
이와 같은 논란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4개월 간 시범 기간을 거친 보육 바우처 사업이 9월부터 시작되었고 12월에는 유아교육 전자바우처 사업 또한 시작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육아지원 사업에 전자바우처가 도입됨으로서 예상되는 변화를 행정 효율성과 부모 역할 증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바우처 제도 현황과 의의

가. 공급자 바우처와 관리 비용

육아에 있어 어떤 방식의 사회적 비용 투자가 최선인가에 대한 정답은 아직 없다. 사회적 여건에 따라 국가별로 공적 부담과 부모 책임의 우선순위가 다르다. 공적 부담의 방식 역시 상이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육아지원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이용권이나 세액공제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는 지금까지 '묵시적 바우처' 방식을 사용해 왔다. 법정저소득층, 차상위 및 저소득 계층, 등록된 장애 영·유아에 대한 육아지원기관 이용료 지원과 보육 공급자에 대한 기본보조금 또는 유치원 종일반비 지원 등은 각기 다른 보조금 명칭이 붙여졌지만 공급자에게 지원되는 묵시적 바우처의 성격을 갖고 있다. 묵시적 바우처라 하더라도 바우처 수혜자 선정은 특정한 자격요건 - 우리는 주로 자산 조사를 통해 소득 계층에 따라 자격을 부여 - 을 충족하는 수요자들에게만 바우처를 지급하는 선별적 바우처(selective voucher)로, 지원 금액은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차등 바우처(differentiated voucher)의 성격 또한 있다. 수혜자 선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 육아지원 기관이 자격을 충족하는 취원아동의 수를 정부에 보고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우처 사업이 운영되어 왔다(〈그림 1〉참조).



[그림 1] 공급자 바우처 운영 체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바우처 체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은 행정기관과 육아지원기관이다. 즉, 육아지원기관은 기본업무인 육아지원 서비스 이외에 행정기관에 보조금 신청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행정기관은 급여내용 결정, 보조금 정산 업무

이외의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묵시적 바우처는 수혜자의 수에 비례하여 공급자에게 보조금이 제공되기 때문에 수혜자 수를 과장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모두에게 바우처는 긍정적인 의의를 갖는 제도임에 틀림없다. 행정기관은 바우처라는 유인으로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때 보다 적은 비용으로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고 시장 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동시에 육아지원기관은 보조금으로 운영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동시에 행정기관의 관리체계를 적극 수용하면서 업무 부담이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수요자 바우처와 관리 효율성

① 바우처와 행정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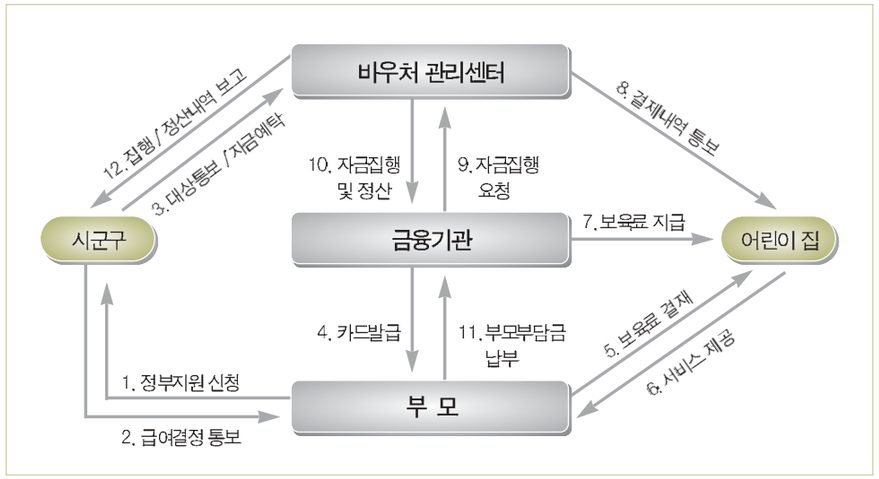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봄부터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으로 전환을 목표로 명시적인 형태의 전자바우처(electronic voucher)[1]사업을 준비하였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역시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도입하여 보육비용 지원을 이용권을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4조의3 신설). 은행 거래와 인터넷 접근이 용이하고 이미 다양한 방식의 전자지불제도가 확산되어 있어 전자바우처 운영 조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전자결제 방식의 바우처는 인쇄 매체 방식 보다 관리 비용을 줄이는 데에 용이하다[2].

전자바우처 시스템은 금융기관, 전자지불방식 시설설치 및 관리업자, 결제은행 등이 바우처 운영의 주요 당사자가 됨으로서 외주 방식에서 오는 운영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공급자인 육아지원 기관은 e-보육 또는 수기 방식을 통한 보조금 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보육료지원 대상아동 증빙서류 취합 역시 불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관리 비용은 필연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동시에 행정기관 역시 문서상 보조금 내역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가 생략되고 부정수급, 보조금신청 오류 등에 대한 민원도 감소되어 행정 업무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1) 전자바우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비용 절감을 위하여 바우처를 전자적으로 구현한 것에 다름아니다. 전자결제 방식 또는 전자지불방식이란 기존의 정부 수혜혜택을 종이(쿠폰이나 수표 등)방식으로 제공하는 대신 전자결제 방식을 수혜자의 계좌에 이체 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방식 하에서 정부는 서비스 수혜자들을 위해서 일종의 가상 계좌를 개설하거나 수혜자들의 기존 은행계좌를 통하여 정부의 수혜 혜택을 제공한다. 수혜금액이 수혜자들의 계좌에 입금되어 그 범위 내에서 수혜자들이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면 전자식 현금보조가 되고 금액 내에서 상품과 서비스만 구입할 수 있으면 전자바우처가 된다(배득종 외, 2008).

2) 전자지불제도를 통한 정부의 관리행정 비용 절감은 서비스 구매 및 제공에 있어서 경쟁증가(정부 입찰시장 참여확대, 기업의 진입확대), 서비스비용절감(입찰자가 비용비교 분석용이, 적시 구입, 경쟁적 계약방식, 대량구입) 및 행정업무 처리의 편리성과 비용절감(보다 빠른 거래, 종이업무 감소, 구입과 비용 관리가 용이)등에서 기인한다(정광호,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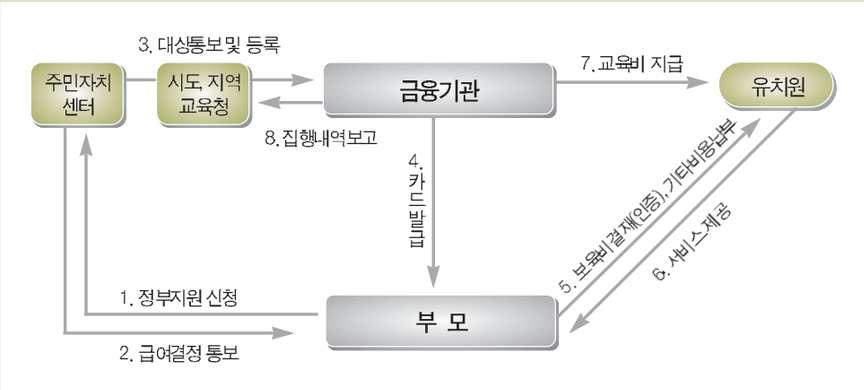
기존의 사업체계와 다르게, 사회서비스관리센터, 금융기관, 업무협약을 맺은 카드사, 카드사로부터 단말기 설치협약을 맺은 통신사와 부모를 위한 정보포털(i-사랑포털, 유치원포털)등이 사업체계에 포함된다. 보육 전자바우처 사업에서는 부모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부모부담금을 더하여 결제하면 정부지원보육료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되어 보육시설로 지원되고, 부모부담보육료는 카드 사용액으로 부모에게 청구된다. 보육시설은 단말기를 설치하여 부모가 카드 결재를 하도록 하면 된다. 따라서 시군구에 보육료 지급 신청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되며, 행정기관은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보육료 집행 및 정산과 지원 대상자 관리 업무는 바우처 관리센터가 전담하고, 카드 발급, 보육료 지불 및 결제 관리는 금융 기관이 대행할 수 있다.



[그림 2] i-사랑카드 운영 체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i-사랑카드 사업의 이해, i-사랑카드 1차 시범사업지역 워크숍자료집

유아교육 전자바우처인 아이 즐거운 카드는 이용 권한이 설정된 전자카드로서 전자바우처 형태이나, 전담 금융기관 계좌 개설이 필요없이 학부모가 선택한 유치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아이즐거운 카드를 직접 사용하면 은행이 해당 유치원에 지원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개인 인증기능만 있기 때문에 아동의 기관 이용 확인 후 금융기관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이 계좌이체 된다.



[그림 3] 아이즐거운카드 운영 체계

물론, 카드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나 결재단말기의 장애 등으로 인한 서비스의 지연 및 중단 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지원기관 서비스 이용자와 공급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혼합되어 있던 것을 분리하고 바우처 관리센터 또는 금융기관을 활용함으로서 행정기관과 육아지원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는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3].

② 수요자 바우처와 부모 영향력

부모에게 전자바우처를 발급한다는 것은 육아지원 기관에 지급하던 정부지원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를 아동연령, 소득수준 등 조건에 따라 전자카드에 담아 부모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것이다. 전자바우처의 시행으로 부모들은 보육·유아교육비신청서 이외에 카드 발급 신청서도 작성해야 하고, 매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직접 결제를 해야 하는 일이 부가되었다. i-사랑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자격판정 절차도 거쳐야 하고 본인부담금액도 날짜에 맞추어 결제해야 한다. 결제계좌는 지정된 몇 개의 금융기관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경비에 대해서는 육아지원기관에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남아있다.

3) 이와 같은 경험은 2007년부터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설립 · 운영을 통하여 지불·정산 업무를 대행한 결과 증빙서류 확인,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지불 정산 업무의 자동화로 최소 전담인력만으로 정산가능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자료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의 별도 회계처리, 집행실적 점검, 정산 보고 등 불필요하게 됨으로써 지자체 업무효율성이 강화되었다. 또한, 정확한 실시간 정산 및 통계자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 행태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자세한 내용은 이경수(2008)를 참조).

이 같은 불편에도 불구하고 전자바우처 지급 대상자가 부모라는 점은 그간 육아지원 서비스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부모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왜냐하면, 수요자에게 지원되는 바우처는 자녀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사람이 부모이고, 부모들은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제재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자 바우처가 육아지원기관과 행정기관 간 업무체계가 핵심이었다면, 수요자 바우처로 전환하는 것의 중심에는 서비스 질 관리의 권한을 부모에게 우선적으로 이양한다는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묵시적 바우처 하에서 육아지원기관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위탁 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나 관리감독을 따르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였다면 수요자 바우처 하에서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육아지원기관의 재정수입이 정부와의 관계가 아닌 육아지원기관 이용자의 지속적인 확보에 달려있으므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모는 여러 기관을 비교 선택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데, 공공 서비스가 발달했던 서구에서 수요자 요구에 민감한 서비스로 전환시키고자 할 때 수요자 바우처를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서비스 공급자는 부모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수요자 바우처는 육아지원서비스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모 책임을 증대시킨다. 즉, 행정기관이 권한의 많은 부분을 부모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최선인 기관을 찾으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3. 육아지원전자바우처에 대한 기대와 우려[4]

가. 투명한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부모의 기대

전자바우처 사업에서 부모들의 선택과 평가는 육아지원 서비스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i-사랑카드 도입이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다수(44.0%)이며 유치원 이용 부모 역시 아이즐거운카드 도입에 대해 유사한 입장이다(〈표 1〉참조).

4) 본 조사는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200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우편조사와 전화조사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16개 지방자치단체별로 비례 할당하여 두 기관 현황표를 이용하여 체계적 무작위 표집을 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수요자는 보육시설 원장 511명과 이용아동 부모 423명, 유치원 원장 494명과 이용아동 부모 418명이다.

〈표 1〉 전자바우처 도입에 대한 의견- 부모

단위: %(명)

구분	좋아질 것이다	차이 없다	불편해질 것이다	계
보육시설 부모	44.0	29.3	26.7	100.0(423)
유치원 부모	44.0	30.9	25.1	100.0(418)

i-사랑카드 도입을 선호하는 부모들은 업무 전산화를 통해 '보육시설의 재정운영이 투명해 진다(37.6%)'는 점을 가장 환영하였다. 다음으로 '부모가 비용을 직접 지불할 수 있어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29.8%)'이고 '보다 다양한 기관을 선택(27.1%)'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선호 이유라고 밝혔는데 보육 서비스에서 부모 자신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고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 밖에 소수이지만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힐 필요가 없어 보조금 지원대상자의 낙인감이 사라진다(5.4%)'는 의견도 i-사랑카드 도입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반면, i-사랑카드 도입이 불편한 이유로는 카드 결제와 관련하여 '매달 직접 가서 결제해야 하는 것이 번거롭다(68.5%)'는 것이 가장 컸다. 이 밖에 '카드를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것의 불편(15.3%)'함과 '자산정도와 관련된 개인정보가 노출(10.8%)'되는 것에 대한 부담스러움을 꼽았다.

〈표 2〉 전자바우처 도입에 대한 의견 - 부모

단위: %(명)

선호하는 이유			선호하지 않는 이유		
	보육시설	유치원		보육시설	유치원
재정운영투명	37.6	40.7	번거로움	68.5	67.6
권리의식	29.8	30.2	카드관리 불편	15.3	19.6
선택확장	27.1	24.7	개인정보노출	10.8	11.8
낙인감소	5.5	4.4	기타	5.4	1.0
계	100.0(181)	100.0(182)	계	100.0(111)	100.0(102)

아이즐거운 카드 도입의 가장 큰 선호 이유 역시 '유치원의 재정운영이 투명해질 것 같아서(40.7%)'와 '부모가 비용을 직접 지불할 수 있어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 같아서(30.2%)', 그리고 '보다 다양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24.7%)'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 반면, 더 불편할 것 같은 이유로는 '분기마다 직접 유치원을 방문하여 결제해야 하는 번거로움(67.6%)' 등 보육시설 부모들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표 2〉 참조.)

나. 운영 여건 변화에 대한 기관장의 우려

부모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은 육아지원기관 운영에서도 변화가 생긴다는 의미이다. 기관장들은 보육시설과 유치원 구분없이 모두 카드 발급 및 이용관련 불편함과 부모 영향력 증대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 물론, 부모들이 불편함보다 영향력 증대에 더 많은 기대를 보였던 반면, 기관장들은 부모의 불편을 더 크게 우려하는 경향은 있다.

다른 한편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기관장들은 전자바우처 도입이 부모의 선택권 증진이 미칠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영유아들의 이동 증가로 관리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 업무 부담이 줄고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며 기관 이용 아동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태도는 시설 유형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 환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국공립과 법인 보육시설장들과 경영환경에 민감한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장 간에는 견해 차이가 있었다. '행정 업무 부담'과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에 대해서는 국공립과 법인 보육시설장보다 민간 보육시설장과 가정보육시설장이 더 부정적이었다. '영유아들의 이동 증가로 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민간과 가정 보육시설장들이 국공립과 법인 보육시설장보다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국공립유치원의 원장들은 사립유치원에 비해 긍정적인 변화들(행정업무 부담 감소, 신규유아 증가, 교육서비스 수준 향상, 부모의 권리의식 향상)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높이 평가한 반면, 부정적인 변화(유아 이동 증가로 인한 관리 어려움, 카드발급 및 관리의 부담)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비해 덜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표 3〉 참조).

〈표 3〉 전자바우처 도입으로 인한 변화 - 기관장

단위:점(명)

	시설 차원				부모 차원	
	행정업무 경감	서비스 수준향상	신규 영유아증대	아동관리 어려움	권리의식증대	카드관리부담
보육시설						
전체	1.78	1.99	1.67	2.97	2.80	3.44
국공립	1.97	2.16	1.80	2.79	2.89	3.29
법인	1.81	1.98	1.77	2.85	2.74	3.44
민간	1.69	1.85	1.52	3.15	2.83	3.51
가정	1.66	1.98	1.58	3.07	2.71	3.51
F값	4.150**	2.838*	5.133**	3.504*	.736	3.504*
(수)	(511)	(508)	(502)	(507)	(505)	(500)
유치원						
전체	2.46	2.29	2.00	2.52	2.88	3.15
국공립	2.83	2.55	2.24	2.40	2.99	3.01
사립	2.08	2.04	1.76	2.63	2.78	3.30
t값	8.929***	6.800***	7.173***	-2.676***	2.550*	-4.327***
(수)	(494)	(495)	(489)	(490)	(491)	(484)

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매우 그렇다
*P< 0.5, **P< 0.01

4.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과제

- 수요자의 의사결정능력의 향상

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와 기관장 모두 카드 결제가 번거롭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육아지원전자바우처 도입에 대해서 부모들은 자신의 영향력 증대를 긍정적으로 예상했고 기관장들은 부모의 영향력 증대로 인한 이동 아동 증가가 가져올 경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요자 전자바우처가 행정 간편화로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재정과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인다고 알려져 왔지만 기관장들이 모두 긍정적인 기대가 높은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명시적 바우처를 통해 제공되는 '구매력'이 신규 수요자를 증가시켜 서비스 규모를 늘릴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도 크게 긍정적이지 않다.

물론, 의견 조사가 제도 시행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모와 기관장 모두 제도 시행과 더불어 의견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첫째, 정부가 유일한 공급자 역할을 담당하는 독점시장에서 다수의 민간 공급자 진입이 허용되는 경쟁시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둘째, 공급자 간 경쟁 유도를 통해서 서비스 수준을 향상, 셋째, 수요자로 하여금 우수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여 높아진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수요자 만족도 증진이라 할 때 결국 문제는 새로운 제도가 어떻게 육아지원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우리는 묵시적 바우처를 통하여 민간 공급자가 다수인 육아지원 서비스시장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첫 번째 문제는 논외로 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서비스 수준 향상과 수요자 만족도는 결국 부모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하는 의사결정능력의 문제와 연결된다.

그런 점에서 부모의 선택권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책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 소비자가 선택권을 갖는 다는 것은 자신이 돈을 내고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다는 인식이 강화될 것이며 제공받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급자의 교체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인데, 육아지원 기관은 주로 근거리 지역에서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제한된 여건속에서 선택권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질 좋은 육아지원기관이 충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쟁이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환경을 개선시키거나 양질의 보육·교육 활동이 필요하다. 앞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들은 육아지원기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기대하고 있는데, 육아지원기관이 합리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면 현재의 재정 상태로도 육아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육아지원기관장들은 시설 유형별로 차별적이기는 하지만 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만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수요자 바우처 제도 도입의 의의를 살리기 위하여 첫째, 부모가 육아지원기관을 선택할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부모가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가는 바우처 제도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육아지원기관의 현황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활용하지 않는 한 선택의 오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새롭게 개편되고 있는 부모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육아지원기관

의 수요자 욕구 충족을 위한 다방면의 질 관리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 수요자 바우처의 기본 원리는 수요자의 현명한 선택이 서비스의 질 향상을 낳는다는 것이지만, 부모가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항상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급자가 수요에 부합한다는 가정하에서라면, 부모들이 가격보다 육아지원서비스 질을 우선하면 양질의 서비스가 만들어지겠지만 가격을 우선한다면 그에 합당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에만 육아지원 바우처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자격을 강화하는 등의 기제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향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배득종·강인재·정창훈·이영범(2008). 전자바우처 제도에 관한 선진국 비교연구, 사회서비스관리센터
- 이경수(2008).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성과", 전자바우처 사업시행 2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 유희정·이정원·안재진·최진(2009). 육아지원 바우처 도입과 정책과제, 육아정책개발센터
- 정광호(2008). 바우처 연구. 서울: 법문사.

지역사회 육아지원 모형 정립 방안: 국공립보육시설의 기능강화 측면을 중심으로[1)]

신나리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송신영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원

1. 들어가며

국공립보육시설은 대표적인 공보육시설로서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설치 주체이며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민간보육시설에서 기피하는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이러한 기대와 요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는 민간보육시설과 유사하여 결과적으로 민간보육시설과 경쟁관계에 놓여 왔다. 더욱이 최근 기본보조금을 위시로 한 각종 정부지원이 대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간의 재정 및 부모가 지불하는 보육료상의 간극이 좁아지면서, 국공립보육시설은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민간보육시설과는 차별되는 추가적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사회적으로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국공립보육시설의 새로운 역할로 대두된 것이 지역사회 내에서의 거점형 보육시설로서의 역할이다.

국공립보육시설의 거점형 기능이란 보육시설 고유의 기능인 보육서비스 제공에서 나아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육아지원, 지역사회 내 타보육시설의 역할 모형 및 지원 등 거점형 보육시설로서 기능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거점형 보육시설에 대한 관심은 지난 2006년 여성가족부와 육아정책 현안 관계부처 회의에서 논의된 국공립보육시설의 발전방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때 논의된 국공립보육시설의 기능은 (1) 지역 내 보육정보센터로서의 역할모형, (2) 육아정보제공 및 육아상담, 놀이공간제공, 아동대상 교재·교구 대여 등 지역사회와 밀착될 수 있는 지역 연계프로그램 운영, (3) 평가인증 조력 및 표준보육프로그램 제공 등 보육서비스 질 제고, (4) 민간보육시설 원장 및 교사 교

1) 본고는 보건복지가족부 수탁과제로 수행된 「취약지역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모델 정립방안(2009)」 보고서의 일부임.